

## 한전, 제16대 이원걸 사장 취임

- 「2020년 글로벌 한전」 목표, ‘한국형 진출 전략’으로 해외전력시장 진출에 매진
  - 성과지향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및 고객과 함께하는 한전 구현
- 한국전력공사 신임 이원걸 사장이 4월 2일 한전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 16대 한전 사장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 이 날 취임식에서 이원걸 사장은 한전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포부를 밝혔다.
- 먼저, 「2020년 글로벌 한전」이 될 수 있도록 첨단 전력기술 개발과 해외전력시장 진출에 주력할 것이다. 미래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전략적 기술개발 과정을 직접 챙겨 나갈 것이며, ‘한전의 뛰어난 기술로 전력을 공급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한국형 진출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둘째, 조직과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지향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내재되어 있는 나쁜 관습과 병폐를 척결하여 열린 한전을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 셋째, 고객과 함께 하는 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 고객중심의 투명하고 바른 경영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상생경영의 표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또한, 이날 취임사에서 **이 사장**은 한전號가 “글로벌 한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항해 나갈 수 있도록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을 당부하였다.

## 발전회사 신임 사장 내정 김종신,곽영욱,손동희,김상갑,정태호 선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남동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5개 발전회사 사장이 내정됐다.

이번에 내정된 신임 사장은 한수원 김종신 서부발전 사장, 남동발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서부발전 손동희 서부발전사업본부장, 남부발전 김상갑 남부발전 사장(연임), 동서발전 정태호 한전 부사장 등이다.

이번 내정자 가운데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전력그룹사 출신이며,김상갑 남부발전 사장은 유일하게 연임됐다 .

## 러시아 유연탄 개발 본격화될 전망

- 산자부 차관, 러 사하공화국 대표단(단장: 외교부장관) 면담 -
- LG상사 사하공화국 유연탄 개발 -

□ 산업자원부 이재훈 차관은 3월 12일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대표단과 양국간 유연탄, 우라늄 공동개발 등 광물자원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이 차관은 LG상사가 사하공화국에 투자하여 연간 70만톤의 유연탄을 생산중인 에렐(유연탄)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사하공화국의 열가(유연탄)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LG상사-광업진흥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 러시아는 석탄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이며, 특히 사하공화국은 극동지역 석탄 매장량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 내에서 대표적인 자원부국임.

○ 금번 대표단 방한 후 올해 적절한 시기에 쉬트로프 사하공화국 대통령도 방한하여 양국간 광물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고위급회담도 개최될 예정.

○ 금번 사하공화국 대표단 및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유연탄 외에도 앞으로 우라늄,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전자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배려설계 국제표준 가이드북 출간

- '08년8월부터 시행되는 유럽 CE마크 인증 지침서로 활용 -

□ EU의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환경배려설계지침 (EuP)이 '08년 8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부터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등 14개 전기·전자제품은 EuP기준을 만족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유럽내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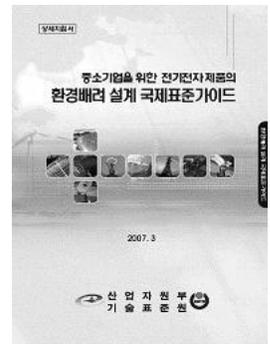
○ EuP 지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배려설계를 의무화하는 환경규제로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WEEE) 의무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표시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 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 :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uP : 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 using Product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최갑홍)은 중소기업이 EuP에 대하여 선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배려설계 국제 표준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 중소기업에서 제품 개발·생산시 에너지 효율 및 환경 배려 설계에 대한 지침서가 될 이번 가이드북은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최신 환경규제와 국제표준화 동향 및 세부절차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 회수·재활용(WEEE) 분야는 국제표준(IEC)에서 제정한 재사용·재활용·재생촉진에 관한 설계자 의무, 평가, 제품 분해방법, 재활용 공정 및 정보제공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분야는 국제표준 제정완료 또는 제정중에 있는 물질선언의 범위, 최소요구조건, 시험분석방법 등을 서술
  - WEEE, RoHS 등을 포함한 포괄적 환경배려설계(EuP) 분야는 제품의 전과정 설계에서 원자재 획득, 제조, 거래·배달, 사용·유지 및 에너지 회수·폐기 등에 관한 일반적 고려사항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등을 기술
- 기술표준원은 환경규제관련 정보부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우선 수출관련 300개 KS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On-Off Line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술·업종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세부 표준가이드북을 금년말까지 개발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 LS산전, 미래환경에 대비한 제2의 윤리경영실천 결의대회 개최



LS산전(대표 : 김정만 [www.lsis.biz](http://www.lsis.biz))이 3월 12일 청주 연수원에서 제2의 윤리경영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미래 첨단 신사업 환경에 대비하여 윤리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직원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정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 업체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첨단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체질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결의대회가 조직문화 혁신의 대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LS산전 경영지원담당 윤희종 상무는 “LS산전은 첨단 신사업 환경에 대비하여 사고와 행동의 대변혁을 통한 사람, 업무, 제품의 완전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 목적도 공정, 정직, 성실을 바탕으로 한 완전무결 달성”이라고 말했다.

LS산전은 자율적 윤리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월말까지 미신고 위반사례의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모든 임직원들은 매년 윤리규범

실천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LS산전은 지난 94년 윤리규범 제정 이후 윤리규범 개정, 제보시스템 구축,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윤리경영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국내 최초 원격운전 청송양수발전소 준공

- 환경친화형 건설로 경북지역에 새로운 관광명소 등장 -

- 한국서부발전(주)은 3월 9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에 위치한 청송양수발전소 현지에서 이재훈 산업자원부차관, 김재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양수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 청송양수발전소 1,2호기는 국내최초 세계최대 원격운전인 설비용량 60만kW 양수발전소로 현대엔지니어링(주)가 설계를 GE Energy가 기자재 공급, 동아건설산업(주), 삼성물산(주), 두산중공업(주), (주)한화건설이 시공을 담당하였으며 2000년 9월에 착공한 이후 총공사비 5,920억원과 연인원 110만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6년 4개월만에 완공하였다.
- 석탄화력발전소 1기보다 큰 설비용량으로 안동시 전기사용량의 8배 규모인 청송양수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국내 전력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7.5%에서 8.4%로 0.9% 증가되었으며 수력 가운데 양수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71%에 이른다.
- 한국서부발전이 건설한 청송양수발전소는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하여 130km 떨어진 삼랑진 양수발전소에서 기동, 정지 및 운전을 하여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경영혁신 모델 발전소로서 국내최초, 세계최대 원격운전 양수발전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이번에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청송양수발전소가 종합준공됨으로써 국립공원 주왕산권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전력계통의 안정과 기후변화 협약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된다.
- 한국서부발전은 건설기간 중에 청송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청송 종합문화회관 건립, 소득 증대사업,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운영 등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약 251억원을 지원하며, 올해에도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는 신상열 서부발전 건설처장이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서부발전 및 협력업체 임직원 36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되었다.

## 남한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보성강수력, 고희(古稀) 맞아

‘電力史의 산증인’, 한때 호남일대 전력수요 담당하기도

남한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보성강 수력발전소가 고희

(古稀)를 맞았다. 일제시대인 1937년 3월 22일 전남 보성군 득량면의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에 댐(길이 273.8m)을 막아 건설된 보성강수력은 발전용량 4500KW 규모로, 남한에서는 현존하는 최고령 발전소이다.

이 발전소는 6.25 동란 중에는 북한군에게 두달여 동안 점령당해 일부 시설이 파괴되는 등 숏한 역경을 겪기도 했지만 수복 뒤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 호남지역 일대의 전력수요를 담당하는 등 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1962년 광주와 목포에 내연발전소가 가동되기 이전까지는 호남지역의 유일한 전력공급원이었다.

고회를 맞은 보성강수력은 지난 1988년부터 약 2년 동안 수차발전기 교체 등 꾸준한 설비개선 작업을 통해 현재도 전력생산은 물론이고, 2200여 정보의 보성군 득량면 간척지와 농토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목적 댐 및 발전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유구한 '전력사의 산증인'으로 고회를 맞은 보성강수력의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6일 정중해 보성군수와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李重載 사장은 “보성강수력발전소는 70년을 가동해 왔음에도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 큰 고장없이 꾸준히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우리나라 전력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온 것이 큰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현재 보성강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2100만 kWh로, 발전량으로 보면 소규모이지만 신재생에너지로서 연간 2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평균 이용률도 53.2%로 높은 편이고, 지

역 전력계통의 전압보상 및 농업용수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보성강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도 활발히 전개, 지난 16년 간 약 30억원을 들여 도로확·포장, 하천준설,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을 건립하고, 3개 면의 각급 학교에 도서실과 여학실을 설치하고 컴퓨터를 보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 동서발전, 당진화력8호기 보일러 최초점화 성공

- 동계 전력부하 대비 12월 준공 예정 -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3월 26일 8호기 보일러 최초점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발전소 건설시 보일러 최초점화는 단위기나 시스템별 공정을 넘어 본격적인 종합 시운전 착수를 뜻하는 중요한 단계다.

당진화력 8호기는 2004년 3월 건설 착공을 시작으로 2005년 8월 압력부 설치, 지난해 8월 보일러 수압 시험 완료에 이어 보일러 최초점화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건설되고 있다.

8호기는 준공까지 5월말 터빈기동, 6월말 발전개시 등의 주요공정을 남겨두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목표공정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역량 강화와 공정지연 요소 사전예측 등 공정 지연 요소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8호기는 동계 전력부하 대비 준공예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최초점화에 성공한 당진화력 7호기는 지난해 12월 계통병입 이후 50만kW의 전출력 송전, 연소시험 및 부하변동시험 성공 등 원활한 공정단계를 보이고 있으며, 7·8호기는 오는 6월과 12월 각각 준공 예정으로 29일 현재 96.66%의 종합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 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 산업안전경영 대상 3년 연속 수상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는 3월 29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된 “2007년도 산업안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서비스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 수상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결과로서 2005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울화력발전소의 대상 수상은 ▶기상재해 및 발전설비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재난관리업무 수행, ▶인간중심의 신안전문화 구현, ▶협력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발전설비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서울화력은 1999년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 인증 획득, 2002년 KOSHA 2000 인증, 2003년 전기안전관리촉진대회 단체상 수상, 2004년 ISO 14001 및 9001 인증, 2006년 무재해 18배 대기록 달성 등 산업안전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안경재 서울화력발전소장은 수상소감에서 “안전경영 대상 수상은 노사가 함께 안전관리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라고 전하고 “안전은

선택이 아닌 절대적 가치라는 신념하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정신으로 무재해 무사고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주)은 2007년 2월 15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재안전진단 및 공간안전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전 발전소의 방재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공간안전인증(Safety Zone-Certi) 시스템을 구축, 산업안전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남동발전-김해시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한국남동발전(주)(사장 박희갑)은 21일 김해시청(시장 김중간)과 한국코트렐(주)(대표 이태영)간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첫 번째 사업으로 김해 명동정수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기로 했다.

빠르면 2008년 1월 준공 예정인 명동정수장 태양광발전소는 설비용량 1000kWp급으로 기존의 태양광발전소와 달리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배치구조를 도입한다.

이 설비가 준공되면 연간 2440배럴의 유류 대체효과와 이산화탄소도 1000톤 이상 감축될 전망이다.

한편 남동발전은 단일용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1000kWp 영흥화력 태양광발전소와 국내 최초 상업용 250kWp급 용융탄산염형(MCFC)분당복합 연료전지발전소, 세계 최초로 발전소 냉각수를 이용한 3000kW급 삼천포 해양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